

타이거 우즈, 캐딜락 챔피언십 우승 '통산 76승'

황제에서 전설까지 앞으로 6승

샘 스니드 최다승 기록...올 시즌 경신 관심
우승 페이스 2000년 최대 전성기 때와 닮아

21일 아널드파머 출전...2년 연속 우승 도전
우승 땀 매킬로이 제치고 세계랭킹 1위 탈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개인 통산 76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역대 최다승 기록 경신에 성공 다가갔다.

우즈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도널드리조트 블루몬스터 TPC(파72·7334야드)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캐딜락 챔피언십(총상금 875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치며 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우승상금은 150만 달러.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에 성공한 우즈는 샘 스니드(미국)가 갖고 있는 PGA 투어 역대 최다승 기록(82승)에 ‘6’으로 다가섰다.

이제 관심은 우즈가 올 시즌 내 역대 최다승 기록을 다시 쓸 수 있을지에 쏠린다.

우즈는 올 시즌 4개 대회에 출전해 2승을 올렸다. 승률 50%다. 이 같은 속도는 최고의 전성

● 타이거 우즈 PGA 투어 우승 기록표

순위	연도	대회명
1	1996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
5	1997	바이런 넬슨 골프클래식
10	1999	모토롤라 웨스턴 오픈
15	1999	WG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챔피언십
20	2000	US오픈
30	2002	베이힐 인비테이셔널
40	2004	WGC 액션츄어 매치플레이
50	2006	뉴익오픈
60	2007	BMW 챔피언십
70	2009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75	2013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
76	2013	WGC 캐딜락 챔피언십

기를 보낸 2000년과 비슷하다. 당시 20개 대회에 출전한 우즈는 9승을 기록하며 놀라운 승률을 보였다.

분위기도 그때와 비슷하다. 1월 시즌을 시작한 우즈는 개막전 메르세데스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했다. 이어진 AT&T 페블비치 내셔널에서 연속 우승 차지하며 1,2월에만 2승을 기록했다. 3월에도 상상은 계속됐다. 베이힐 인비테이셔널 우승으로 3승에 성공했다. 3월 이후 무려 6승을 쓸어 담

았다. 눈 여겨 볼 점은 마스터스 이후 우승이 집중됐다. 우즈는 당시 마스터스에서 5위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3개 메이저 대회(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챔피언십)를 모두 휩쓸었다.

우즈는 한 주 휴식을 취한 뒤 21일부터 열리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부터 다시 시즌을 시작한다. 작년 긴 침묵을 깨고 우승했던 대회다. 우즈는 우승했던 대회에서 우승하는 횟수가 많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샷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승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시즌 2승에 성공한 우즈는 경기 뒤 “만족스런 대회 중 하나였다. 특히 퍼트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됐다”고 말했다. 우즈는 이번 대회가 시작하기 전 절친한 친구이자 준우승을 차지한 스티브 스트리커로부터 퍼트 레슨을 받았다.

이번 우승으로 골프황제 탈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기준 남자골프 세계랭킹 1,2위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11.47점)가 이 대회에서 공동 8위(10언더파 278타)에 그치면서 1,2위간 차는 큰 폭으로 줄었다. 2위 우즈(10.48점)가 다음 대회에서 또 우승할 경우 1위로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 한국계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한 존 허(23)는 이날 4타를 잃으면서 공동 28위(3언더파 285타)로 떨어졌다. 하지만 존허는 7만50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11일(한국시간)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캐딜락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통산 76승째를 거둔 타이거 우즈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로써 우즈는 미PGA 투어 역대 최다승(샘 스니드 82승) 기록 경신을 위해 6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마이애미(미 플로리다주) | AFP연합뉴스

1 플레이오프 놓치고 2 드림식스도 놓치고

러시엔캐시 두 번 눈물 흘리다

김종건 전문기자의 V리그 레이더

대한항공에 패하며 'PO진출 기적' 좌절
드림식스도 우리금융지주에 인수결정
비공개 진행 인수과정 공정성 아쉬움도

2012~2013시즌 프로배구 V리그의 종착역이 코앞이다. 포스트시즌에 나갈 6개 팀이 모두 가려졌다. 여자부는 현대건설이 6일 마지막 플레이오프(PO)티켓을 따내 먼저 매치업을 확정했다. 남자부는 9일 인천에서 운명의 승부 끝에 웃는 두 팀과 우는 한 팀이 나왔다. 7일에는 2년을 끌어온 한국배구연맹(KOVO)의 숙제도 해결됐다. 우리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드림식스의 매각이 완료됐다. 봄 배구는 16일 GS칼텍스-현대건설, 17일 대한항공-현대캐피탈의 3전2선승제 PO를 시작으로 새로운 전설을 만든다. 정규리그 1위 IBK기업은행(여자부)과 삼성화재(남자부)는 PO승자와 5전3선승제의 챔피언결정전을 한다. KOVO는 14일(여자부), 15일(남자부)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9일 두 감독은 웃고 한 감독은 눈물 흘리다

7연승을 달리며 마지막 기적을 노리던 러시엔캐시는 대한항공에 1-3으로 패해 PO 진출이 좌절됐다.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6을 무조건 따야했던 러시엔캐시는 1세트부터 듀스 끝에 잡아내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2세트에 이어 3세트마저 역전패하며 시즌 농사를 마감했다. PO진출 매직넘버 1만을 남겨뒀던 대한항공으로서 이날 두 세트만 따내면 했지만 김종민 감독대행도 그렇고 선수들도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러시엔캐시의 기세가 워낙 대단했다. 3세트가 두 팀에는 운명의 순간이었다. 결국 그 고비를 넘긴 김종민 감독과 리베로 최부식은 4세트를 앞두고 서로를 포옹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도 얼핏 보였다. 두 사람은 프로팀에서 뛰지만 대한항공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분이라 다른 선수들과는 승리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던 모양이다.

●현대캐피탈이 나흘간 애매운 사연

현대캐피탈 하종화 감독도 9일 인천 경기를 지켜본 뒤에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러시엔캐시가 패하면서 어부지리로 봄 배구 진출권을 따냈다. 현대캐피탈은 시즌 종료 2경기를 남겨놓고 PO진출 매직넘버가 1이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졸일 줄은 몰랐다. 그러나 5일 천안에서 1-3으로 러시엔캐시에 패하면서 시즌 마지막 날인 13일 KEPCO경기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PO진출이 확정됐다면 일찍 포스트시즌 준비체제로 전환했겠지만 그날 패배로 마지막 경기까지 준비하는 8일간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다행히 대한항공이 이기면서 현대캐피탈의 공백은 나흘로 줄었다. 승점 1점이 이토록 중요한 무개를 지닌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 것 같다.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드림식스 인수 기자회견에서 KOVO 신원호 사무총장(왼쪽)과 팀의 새로운 주인으로 결정된 우리금융지주 박동영 사무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marine007

●강렬한 임팩트 남긴 러시엔캐시의 진정성

9일 인천도원체육관에는 많은 러시엔캐시 팬과 직원들이 응원전을 펼쳤다. 비록 7일 이사회 결과로 팀은 다른 기업에 넘어가지만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팀이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했다. 기업의 상징인 노란색 옷을 단채로 입고 플래카드를 흔들며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드림식스는 영원히 우리 가슴에 있을 것’이라는 응원문구는 모든 러시엔캐시 관계자의 마음을 대변했다. 3세트에서 팀이 패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던 여성팬의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러시엔캐시는 당분간 프로배구와 이별을 하겠지만 이번 시즌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은 배구인과 팬의 가슴속에 오래 남을 전망이다.

●KOVO 이사회 막전 막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벌어진 KOVO 이사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팽팽했다. 예상 못한 경쟁자의 등장에 러시엔캐시는 최윤 회장이 호명을 찾아 이사회 결과를 지켜보는 등 전력투구를 했다. 두 회사는 PT를 앞두고 누가 먼저 발표를 할 것 인지를 가리는 동전던지기를 했다. 우리금융지주가 먼저 발표권을 얻었다. 제한시간 30분을 넘지 않았다. 러시엔캐시는 제한시간을 넘기며 감정에 호소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승리였지만 러시엔캐시의 선전이 돋보였다. 이사회에 참여했던 어느 이사는 “우리금융지주에 물표가 나올 경우 러시엔캐시가 난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깜짝 놀랐다. 예상 외로 많은 표와 점수가 러시엔캐시에 나왔다”고 전했다. 이사회 발표 뒤 러시엔캐시는 혼돈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금융지주로 사전 내정했다는 소문이 퍼질 전 나폴이 투표결과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양측은 신속한 조율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보다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자고 합의했다. 다행히 이사회 결과가 좋게 끝났지만 과정에서는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첫째 KOVO가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남자부 6R 결과 및 일정 (11일 현재)

순위(승점)	6R 결과 및 일정	비고
①삼성화재(67)	◆◎◆ 대한항공	챔프전 직행
②대한항공(52)	◆◎◎◎ 삼성화재	PO진출
③현대캐피탈(49)	▲▲◆◆ KEPCO	PO진출
④러시엔캐시(44)	▲◎◎◎ LG손보	PO탈락
⑤LG손해보험(42)	◆◎◆ 러시엔캐시	PO탈락
⑥KEPCO(7)	■◆◆▲ 현대캐피탈	PO탈락

●여자부 6R 결과 및 일정 (11일 현재)

순위(승점)	6R 결과 및 일정	비고
①IBK기업은행(71)	◎◎◎◎ GS칼텍스	챔프전 직행
②GS칼텍스(61)	◎◆◎◎ 기업은행	2위 확정
③현대건설(50)	◎◆◆ 도로공사	3위 확정
④도로공사(46)	■◎◆◆ 현대건설	PO탈락
⑤흥국생명(21)	■◆◆◆ 인삼공사	PO탈락
⑥KGC인삼공사(13)	◆◎◆ 흥국생명	PO탈락

※ ▲=3-2승리, ◎=3-0, 3-1 승리, ◆=2-3 패배, ■=1-3, 0-3 패배

심어줘야 하는데 실패했다. 경쟁의 생명은 관리자의 공정성이다. 그래야 관련자들이 납득을 한다. 그런 면에서 러시엔캐시가 진정으로 결과에 납득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중요한 안건을 소수가 비밀리에 추진하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샀다. 소문과 오해는 음지에서 자란다. KOVO는 중요한 안건을 이런 식으로 가림 처리한다. 그 결과는 누더기 같은 규약이다. 올바른 행정의 기본은 공개다. 그 래야 사전에 문제가 스크린 된다.

셋째 두 경쟁 기업이 자신들의 비전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팬들에게 주면서 이사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너무 서둘렀다. 이번에는 경쟁만 있고 축제는 없었다. 아쉬움은 남지만 KOVO가 더 이상의 잠음이 나오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한국골퍼들이 칠레 간 이유?

캘리포잉스쿨 폐지로 PGA 입성 ‘웹닷컴’ 필수
김대현 등 6명 칠레클래식 출전...美 진출 결의

미 PGA 투어로 가는 길은 좁다. 그러나 한국선수들의 도전은 더욱 거세졌다.

11일(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골프장(파72·6711야드)에서 미 PGA 웹닷컴(2부) 투어 칠레클래식(총상금 65만 달러)이 열렸다.

이 대회는 총상금이 65만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우승 상금은 11만 7000달러로 국내 대회와 비슷하다. 톱10에 들지 못하면 경비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모두 6명의 한국선수가 출전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 한국선수들이 멀리 칠레까지 날아간 이유는 하나다. 2014년 PGA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PGA 투어는 2013~2014시즌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캘리포잉스쿨을 폐지한 대신 웹닷컴 상금랭킹 상위 75명과 PGA 투어 상금 126위부터 200위까지 선수들이 3차례 대회를 치른다. 최종 대회 상위 50명에게 PGA 투어 출전권을 준다. 따라서 새로 PGA 투어 입성을 위해선 웹닷컴 투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규모도 작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한국선수들의 각오는 대단하다. 웹닷컴 투어에 출전 중인 김대현(사진)은 “미국에서 팔장을 보겠다”며 결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대회에서 장익제(39)는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쳐 공동 6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 가장 순위가 높다. 김민휘는 공동 26위(12언더파 276타), 강성훈과 김대현은 공동 65위(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쳤다.

주영로 기자

코리언 브라더스 ‘무기력’

양용은·최경주 등 푸에르토리코 오픈 부진

시즌 첫 승 합작에 나선 코리언 브라더스가 동반 부진하며 우승 사냥에 실패했다.

양용은(41·KB금융)과 최경주(43·SK텔레콤), 배상문(27·켈러웨이) 등은 11일(한국시간) 푸에르토리코 리오 그란데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7569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푸에르토리코 오픈(총상금 350만 달러)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양용은이 최종일 경기에서 5언더파 67타를 치며 순위를 공동 30위(11언더파 277타)까지 끌어올렸을 뿐, 최경주와 이동환(26·CJ오쇼핑)은 공동 57위(8언더파 280타), 배상문은 공동 67위(5언더파 283타)에 그쳤다. 한국선수들은 같은 기간 캐딜락 챔피언십이 열려 강호들이 대거 빠진 대회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끝난 경기에선 스코트 브라운(미국·20언더파 268타)이 생애 첫 우승에 성공했다. 2006년 데뷔한 브라운은 7년 만에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주영로 기자